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3 호

2020 년 3 월 15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 (~3/27)
2. UNGC 한국협회, KoSIF, WWF Korea,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3. UNGC Leaders Summit 2020 (6/15~16) 2 차 얼리버드 등록 (~3/31)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코로나 19, 기업연대를 통한 빠른 회복 촉구
2. [Executive Update] 너무 느린 성평등 달성 속도
3. [발간물] 여성역량강화와 비즈니스: 2020 동향 및 기회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용품 공급
2. [Goal 5, 7, 8, 10, 12, 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LG전자
3. [SDG 미디어 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후변화 의식 변화
 -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디자이너 겸 Trollback Company CEO 외 1 인

■ UNGC 회원 뉴스

1.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가치 채권 인증 획득
2. 신한은행, 코로나 19 금융지원 위한 소셜본드 발행
3. 예술위, 문화예술 공공기관 첫 인권영향평가

■ CSR 뉴스

1. [피플]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2. 법률이 여성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3. 글로벌 ‘ESG 투자’ 폭풍성장…한달새 6.8 조 유입
4.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2020 TGE (Target Gender Equality) 모집 (~3/27)



여성 비즈니스 리더십 향상을 위한 기업의 야심찬 목표

TGE (Target Gender Equality)는 UNGC 회원사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TGE는 기업이 2030 의제의 SDGs 세부목표 5.5 달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요

TGE는 SDGs의 5 번째 목표(성평등)의 세부 목표(5.5)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촉진 프로그램입니다.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통한 자사 여성 정책 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동료 (peer-to-peer) 학습,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혜택

- 실질적이면서도 야심찬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목표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해 자사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국가 상황에 맞는 성평등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평등 전략을 수립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 향상,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자사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자격 요건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UNGC 회원사이거나 가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할 두 명의 실무진과 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하고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한 명의 임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참여 지역협회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음의 UNGC 지역협회가 TG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레바논
- 멕시코
- 방글라데시
- 브라질
- 스리랑카
- 스페인
- 영국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칠레
- 케냐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터키
- 파라과이
- 포르투갈
- 폴란드
- 호주

일정

- 기업 등록: 2020년 2월 - 3월
- 프로그램 시작: 2020년 4월
- 프로그램 종료: 2021년 3월

UNGC 가입 및 TGE 참여를 원하시나요?

가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 여지원, 공유진 연구원 (02.749.2149/215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Target Gender Equality 란 무엇인가요?

A: 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는 UNGC 회원사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020 년 TGE 프로그램은 임원 내 여성 리더십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공급망 내 여성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같은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하는 총 20 곳의 UNGC 지역협회가 TGE 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 별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행동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Q: TGE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A: TGE 를 통해 UNGC 회원사는 자사의 성평등 강화 정책을 평가하고, 조직 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설정합니다. TGE 참여 회원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UNGC 10 대 원칙, 특히 인권 관련 원칙 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과 노동 관련 원칙 6(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그 외 모든 부문의 기업들이 여성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에 있어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UNGC 와 UN 여성기구(UN WOMEN)의 공동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현재 2,000 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WEPs CEO 지지 서명서에 참여했습니다.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목표 5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목표 5.5 는 2030 년까지 여성이 경제 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경제적 역량 강화는 교육 (목표 4), 건강 (목표 3), 빈곤 퇴치 (목표 1)와 기후 행동 (목표 13) 등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 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여성 리더십과 ESG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Q: TGE 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A: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은 UNGC 와 UN Women 이 2010 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 는 기업이 직장,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WEPs 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WEPs CEO 지지 성명서는 기업 지도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지지 약속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WEPs 의 핵심 요소인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TGE 참여 회원사는 WEPs Tool 을 활용하여 자사의 성평등 정책 현황과 자사의 성평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WEPs CEO 지지 성명서를 작성한 기업은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WEPs 에 참여하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TGE 는 UNGC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UNGC 회원사가 아닌 경우, 가입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UNGC 회원가입 안내]

Q: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WEPs Tool)은 무엇인가요?

A: WEPs Tool 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기업이 성평등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점과 약점 및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Ps Tool 은 UNGC 가 운영하며 UN Women, IDB 다자 투자 기금 및 IDB Invest 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WEPs Tool 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TGE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황 분석:** WEPs Tool 을 활용해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기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역량 강화:** 전문가와 TGE 참여기업이 함께하는 워크숍은 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합니다. 프로그램은 각 국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기업의 리더십이 고려할 수 있는 맞춤 이행 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TGE 는 기업, 정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통해 기업은 성 불평등을 조장하는 장벽을 허물고,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및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동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지지:** TGE 참여기업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를 위한 UNGC 의 미션에 동참할 수 있으며, 웹, 소셜미디어, UNGC 뉴스레터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UNGC 행사는 TGE 의 성과를 알리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년 내내 진행됩니다. 관련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여성역량강화원칙 연례 포럼(2020 WEPs Annual Forum, 2020. 3. 20)
- UNGC 런칭 20주년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20, 2020. 6. 15-16)
- 유엔 총회 주간(The 75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Week, 2020. 9. 15-30)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MGGLB, 2020. 9)

Q: TGE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가 신청: 2020년 2월 17일 - 3월 말
- 활동 기간: 2020년 4월
- 프로그램 종료: 2021년 3월

자세한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TGE 참여기업은 다양한 연구 자료, 파트너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TGE 참여는 직원,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귀사의 노력과 헌신을 알리고, 잠재적 여성 리더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기업에서는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나요?

- 두 명의 실무진을 'TGE 담당자(TGE Representative)'로 지정
 - 대표 실무진은 TGE 관련 회의, 이벤트 참석 및 TGE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참여기업은 대표 실무진을 지정할 때 실무진의 개인 프로필(예, 남성/여성)과, 조직 내 활동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한 명의 임원을 'TGE 앰배서더(Ambassador)'로 지정
 - TGE 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TGE 앰배서더는 기업의 CEO 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CEO 가 TGE 앰배서더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참여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 TGE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Q: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TGE 에 참여하고 있나요?

A: 본 프로그램은 현재 총 20 개의 UNGC 지역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영국

Q: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도 TGE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네, 참여 가능합니다. TGE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TGE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목표 설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TGE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TGE 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기존에 설정한 목표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글로벌 목표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TGE 에 참여한 기업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야심찬 목표를 갖고 보다 더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소규모 전문가와 주요 리드 기업으로 이루어진 TGE Global Coalition 에 초대받아,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TGE 활동에 도움이 될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TGE 참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0 TGE 참여 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UNGC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된 기업에는 별도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TGE 더 알아보기

참가신청서

2. UNGC 한국협회, KoSIF, WWF Korea, Greenpeace 와 함께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 런칭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대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KoSIF, WWF Korea, Greenpeace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지구온도 상승을 1.5 °C로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간략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1.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제) 구축

- 참여 기업 모집 및 발족 (5월 말 예정)

*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란?** 녹색요금제 및 기업PPA를 비롯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 방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제도 개선 및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목표 2.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실무자 대상 워크숍 (분기 별 1회)
- 경영진 대상 재생에너지 포럼 (1회)
- 가이드라인 발간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대상 배포)

목표 3.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정책 환경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정책 대화 추진
- 이해관계자 서베이 진행

목표 4. 기업 재생에너지 목표 선언 지원

- 각 기업별 미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지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2150, gckorea@globalcompact.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Leaders Summit 2020 (6/15~16) 2 차 얼리버드 등록 (~3/31)



유엔 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 행사에
초청합니다.

2020년 6월 15-16일, 뉴욕

#LeadersSummit



*** 본 행사는 코로나 19 로 인해 불가피한 일정 연기 및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확정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이 10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출범 20 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다자주의의 미래, 유엔의 가치에 대하여 전세계 회원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UNGC Leaders Summit 2020 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논의의 장이자 축제가 될 Leaders Summit 은 2020 년 6 월 15 일-16 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행사는 유엔 본부 총회장 및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진행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탄생지이자 글로벌 기업활동의 심장부에서의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20

역대 참여 연사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알 고어
미국 42 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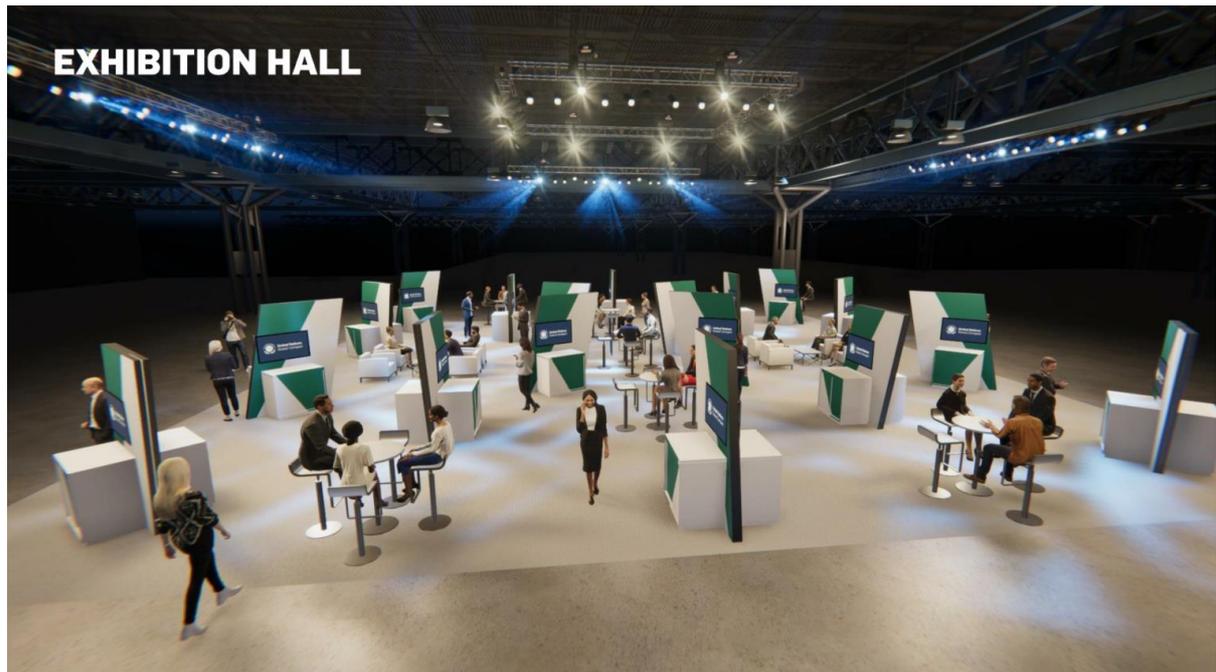


자밀라 자밀
배우, 사회운동가

- 일시: 2020년 6월 15-16일
- 장소: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제이콥 재비츠 센터
- 주요 일정: 기조연설/ 환영 리셉션 / 소규모 세션 / 네트워킹 / 전시관 운영* / 문화행사 등

금번 Leaders Summit 행사는 뉴욕 최대의 컨벤션 센터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개최되어 참여기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기간 동안 보다 활발하고 풍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관련 제품을 포춘 500 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계적인 리더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정 금액 후원을 통해 6월 16일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는 12개 UN 산하기구가 참여하는 UN Pavilion도 별도 마련되어, 전세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현황 뿐만 아니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사회활동 프로젝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담당자와 직접 대화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이콥 재비츠 센터 전시관 전경 (예시)

15-16일 본 행사 외에도 14일에는 뉴욕 곳곳에서 도심 속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과의 공존을 직접 경험해보실 수 있는 [브루클린 그레인지 농장\(Brooklyn Grange Farm\)](#),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내셔널지오그래픽 오션 오디세이\(Ocean Odyssey\)](#) 투어 등 행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피스보트(PEACE BOAT) 내부 투어는 취소되었습니다.)

행사 주간 하이라이트



6월 14일 일요일



6월 15일 월요일



6월 16일 화요일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UNGC Leaders Summit 2020 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2 차 얼리버드 옵션으로 티켓 할인이 가능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0 더 알아보기](#)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코로나 19, 기업연대를 통한 빠른 회복 촉구

세계가 코로나 19 대유행의 위협에 눈을 뜨면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싸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은 최고조에 이르겠지만 우리 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함께 행동하여 바이러스 확산의 추세를 늦추고 서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환자, 취약계층과 같이 가장 위협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규모 기업과 공급망 내의 노동자, 그리고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부담을 안는 여성과 같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커지는 세계적 경제 공황의 위협 속에서, 금융시장은 급격한 하락장의 형태를 보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이며, 패닉에 빠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낙인이 아닌 과학을 추구해야 하며, 공포가 아닌 사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침착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커뮤니티로서 우리 모두가 확고하고 신중하며 결단력있는 위 메시지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 봅시다.

연대를 위한 호소문

오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촉구하는 특별호소문(special appeal)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은 모든 기업이 코로나 19 확산의 저지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며,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촉진을 통한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연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는 생활 필수품 및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기타 행동 실천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정부 기관 그리고 보건당국의 바이러스 예방, 탐지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내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좁은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와 단결을 통해 공급망 내 직원과 근로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비용, 무급 휴가, 실업과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빠른 회복은 비즈니스 연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된 세계 경제에서 우리는 이미 무역 및 공급망이 붕괴하여 기업과 경제의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학자들은 최근 코로나 19가 세계 경제에 약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지원하면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은 이행 중인 계약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할당량 등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계 및 정책 입안자와의 협력으로 우리는 특별 신용 한도를 유지하고 상환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대유행 대응에 필수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현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은 이해 관계자의 신뢰, 평판 및 정당성을 정의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의 10 년(Decade of Action)’을 앞둔 지금, 코로나 19 는 엄청난 도전과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며 연대를 통한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2. [Executive Update] 너무 느린 성평등 달성 속도

아래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3월 6일자 GreenBiz 기고문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Trailblazing Women's Reception* 부터, 다보스 *Female Quotient House* 패널 토의, 이베리아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행사까지, 메시지는 분명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미루는 것도, 작은 변화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도 멈추어야 합니다.

너무 느린 변화의 속도

변화의 속도가 놀랄만큼 느리다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2020 세계경제포럼(WEF) 성 격차 리포트(Global Gender Gap Report)는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 무려 257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열 세대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불평등이자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 손실이기도 합니다. 성평등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주요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우려는,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 참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1990년 30.4%에서 2019년 23.4%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업 고위직 여성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그 속도 또한 너무 느립니다. 세계적으로 관리자 및 임원 중 단 27%정도만이 여성이며, (아랍권 국가에서는 11%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39%까지 지역별로 상이) 이 수치는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이끄는 여성 CEO가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그 비율은 6.6%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사진 중 약 [80%가 남성](#)이며, [13% 이상의 기업들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마침내 평등을 막는 장벽을 넘어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비즈니스, 정책, 예술, 교육기관 등에서 성평등 의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보는 건 기쁜 일입니다.

성희롱과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한 #MeToo 나 #TimesUp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HeforShe 캠페인, 그리고 'Male Champions of Change'와 같이 남성이 성평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업활동 내 성평등 증진을 돕는 전체론적이고 실용적인 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의 촉진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의 파트너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년 전 CEO 39명의 참여로 시작했던 여성역량강화원칙은 현재 2,700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시기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들은 여성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연간 수익률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들보다 약 2.8%포인트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이사진 중 3분의 1 이상이 여성인 유럽과 이사진 중 단 5%만이 여성인 일본과 같이 지역 간 격차가 높음에도 세계적인 흐름으로 널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사회](#)의 30~39%가 여성일 때 기업이 더 나은 사업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18.5% 더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지 표명과 행동의 차이를 깊고 넘어가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BSR 이 WEPS tool 을 사용한 2,000 여 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 68%의 기업이 성평등에 대한 경영진의 지지를 표했으며, 40% 이상이 성평등 지지를 공표했으나, 30% 미만의 기업들만이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 기한을 정해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 30% 이상을 여성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arget Gender Equality\(TGE\)](#)를 런칭했습니다. TGE 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위직의 최소 30%를 여성들로 구성하도록, 또한 그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도록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귀사가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이미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함께 다질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한 [글로벌 연구 사례](#)에 의하면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시점은 성별 다양성의 혜택이 이해관계자들 및 주주들에게 더 나은 결과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Target Gender Equality 는 유엔 행동의 10 년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다보스에서 런칭한 [SDG 앰비션\(SDG Ambition\)](#)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들이 2030 의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해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더 큰 포부를 갖도록 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과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깊이 내재화하도록 합니다. SDG 앰비션은 기업들이 △기업 전략과 지배구조에 있어 더 높은 목표를 갖도록 하고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내재화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및 주주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GE 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업활동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의 참여를 위한 야심찬 목표와 그에 대한 달성 기한을 정하고, 이를 기업의 평가 지표와 경영 전략에 녹여냄으로써 우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 지역 협회들과 함께 향후 3 년간 1,000 여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여 고위직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TGE 는 정책 분석, 혁신, 문화적 변화 등 기업이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부적 안전들을 해결하는 행동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TGE 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을 한데 모아, 무급 돌봄 노동 등 여성의 경제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의지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은 2030 의제 실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사회, 경제 및 직장, 건강과 학업, 정치 참여와 리더십 등 사회 전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가속화하는 것은 2030 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 소요될 257 년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위한 도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고위직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발간물] 여성역량강화와 비즈니스: 2020 동향 및 기회 보고서



TURNING COMMITMENTS INTO ACTION

In the decade since the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were launched by UN Women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the business case for gender equality has continued to grow, demonstrating how embedding gender equality across business strategy and operations is a smart investment.

At the same time, increasing evidence highlights the deeply entrenched and systemic barriers working women face globally,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to the unequal share of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Around the world, companies now recognize the value of actively supporting women throughout business operations, from the leadership to the supply chain to impacted communities. More than 2,000 companies have used the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an online resource for companies to benchmark across gender equality performance across the workplace, marketplace, and community. This report presents the aggregate findings of the tool for selected industries.

The overall picture reflects incremental progress but leaves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The majority of companies have made corporate commitmen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more than 2,000 CEOs have signed the

WEPs CEO Statement of Support. Yet few companies have taken the necessary next steps to meet those commitments, by implementing, monitoring, and reporting on progress toward gender equality. Strong policies for the groundwork for environments that support women, but without concrete targets, adequate programming, and accountability, there is little chance gender gaps will close or culture will change to enable women to thrive.

Going forward, the UN Secretary-General has called on all acto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to mobilize for a 'Decade of A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s at the top of the 2030 Agenda, both through SDG 5 and as a catalyst for achieving the other 16 goals. That is why, at the beginning of this decisive decade, it is critical to build on the momentum and scale business ambition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he UN Global Compact and BSR have been working steadily with companies to inform their approaches and drive progres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BSR and the UN Global Compact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support businesses with the tools and insights needed to navigate the existing decade and move from commitment to action on gender equality. Business as usual is no longer working for women or men, but innovative solutions designed with and for women can meet and beyond the status quo toward a gender-equal workplace.

THE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18 MULTIPLE CHOICE QUESTIONS

The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is composed of 18 multiple choice questions across four areas: leadership, workplace, marketplace, and community.

4

MANAGEMENT STAGES

The tool also covers four management stages—commitment, implementation, measurement, and transparency—to ensure commitments are coupled with substantive action to implement the WEPs.



The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is a joint project of the UN Global Compact, UN Women, the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o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and IDB Inv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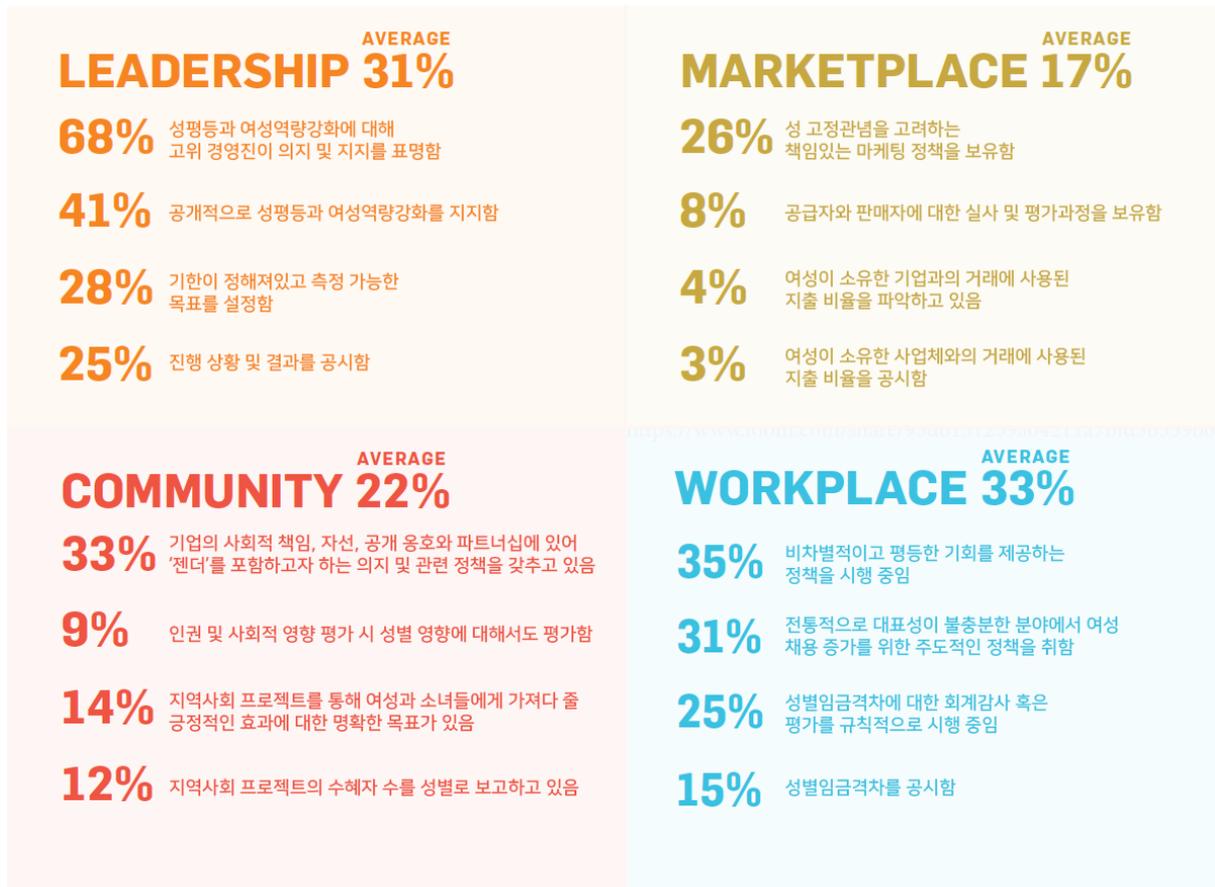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여성역량강화원칙 성격차 분석 툴(WEPs Tool)의 집계 결과를 분석해 성평등에 대한 글로벌 기업성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여성역량강화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보고서는 성평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강하지만, 기업들은 달성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나 강력한 책임 매커니즘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출범 이후 10년 간 기업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근본적인 성평등을 이룩해내는 것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전 세계 일하는 여성들은 폭력, 괴롭힘부터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뿌리깊고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임원 내에서부터 공급망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2,0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 걸쳐 익명으로 성 평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WEPs 성격차 분석 툴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택된 지표에 대한 툴의 종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성 평등 향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2,900 명의 CEO가 WEPs CEO Statement of Support 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의 기업만이 실행(implementing), 모니터링(monitring) 및 보고(reporting)와 같이 성평등을 위한 다음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진력있는 정책은 여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성별 간 격차를 없애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UN 사무총장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SDGs 달성을 위한 “Decade of Action”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DGs 5번 목표와 일치하는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강화는 또한 나머지 16개 목표 달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2030 아젠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10년을 앞둔 지금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달성을 위해 추진력을 키우고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UNGC와 BSR은 성평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목표로 기업들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NGC와 BSR은 기업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다가오는 10년 간 성평등 실천 및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이상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더 발전된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드론을 활용한 응급 의료용품 공급



Zipline 은 자동 드론을 활용해서 응급으로 필요한 의료용품을 공급합니다.

집라인(Zipline)은 자동 드론을 활용해 응급 의료용품을 원거리 의료 시설에 공급합니다. 르완다에 본부를 둔 그들의 첫 프로젝트는 드론을 활용해서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거나, 계절 변화가 의료용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의 병원과 원거리의 의료시설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품은 드론 기술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집라인의 유통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의료진이 문자 메시지나 WhatsApp 메신저를 통해 의료품을 신청하면 유통시설에 배치된 직원들이 의료용품을 포장하여 배송을 준비합니다. 이후 기술자들은 드론을 작동시켜 원격 조정 없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시속 100km 의 저고도로 비행하게끔 합니다. 의료용품은 보통 30 분 내 목적지에 도착하며, 목적지 상공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투하되어 의료진에게 전달됩니다.

드론은 전기로 충전되며 약천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르완다에 있는 시설은 상시 운영되며 현재 하루 500 번 이상 배달이 가능합니다. 집라인은 2016 년 10 월 출범 이후로 이미 7000 여 개의 혈액을 4000 여 차례의 배송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 중 20%는 수도 키갈리 외곽에 전달되었습니다. 공급된 혈액은 주로 임신 합병증을 겪는 임산부와 말라리아로 인한 빈혈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집라인은 탄자니아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백신, 항생제, 기초수술용품 등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약품까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하루 2,000 건의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Zipline 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르완다의 보건 시스템은 최근 수십 년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르완다는 산모 사망률을 [1990 년 10 만 명당 1300 명에서 2015 년 290 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르완다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1 년에 두 번씩 우기가 있어, 혈액을 공급하는 데 평균 4 시간씩 걸렸으며, 이는 많은 경우 생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론을 통해 혈액 수송의 시간을 4 시간에서 30 분으로 줄임으로써 집라인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건강과 복지

집라인은 공급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혈액에 공급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출산 및 말라리아와같은 질병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2. [Goal 5,7,8,10,12,13]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LG 전자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G 전자는 ‘인간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여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객, 환경, 협력회사, 지역사회,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의 미래를 가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LG 전자는 중장기 관점의 3대 지향점 및 9대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대 지향점	추진 과제 / 관련 SDGs	세부 추진목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지능형 생활 환경 구축	-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대하여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지능형 연결(Intelligent Connectivity)을 구축하고 제품/서비스에 공감 가치를 더하여 더 나은 삶의 환경 조성)
	 고객의 건강한 삶 추구	-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여 고객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 (사회/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술 결합 (Hardware, Software, AI, 5G)으로 고객 맞춤형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장)
	 그린 비즈니스	-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인류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사업-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탄소 중립(Zero Carbon) 추구	- 생산 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15만톤 감축(누적 감축량 100만톤) (~2020)
	 제품의 환경영향 저감	- 2030년까지 자체 친환경 제품 평가에 의한 Green 3 Star 등급 제품 비중 80% 달성 (개발Project 수 기준) * 2017년 현재 Green 3 star 등급 제품비중: 45%
	 자원순환 촉진	- 생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95% 달성(~2030) -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만톤 달성(2006년 이후) * 2017년 현재 누적 회수량: 205만톤
더 나은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 책임있는 광물사용 인증 제련소(RMAP conformant) 100% 사용(~2021) - 모든 1차 협력회사 CSR 리스크 점검 및 2,3차 협력회사로 확대(~2020)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 구축	- 제조업 분야 최고 수준(독립적 단계)의 안전문화 정착(~2030) - 전 생산사업장 대상 CSR 자가진단 상 저위험군(low risk) 100% 달성(~2020) -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공헌 확대	-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활용, 사회적 이슈 해결(누적 수혜자 30만명)(~2030) - 파트너십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성장과 자립 기반을 지원 (누적 수혜자 10만명)(~2030) - 자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국가에서 임직원 봉사 활동(~2030)

2. SDGs 전략 및 사례



탄소 중립(Zero Carbon) 추구

LG 전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고객가치 제공을 목표로 전사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그린 경영 전략은 생산단계 온실가스 감축, 사용단계 에너지 효율화 향상, 사업 전 부문으로의 온실가스감축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4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내재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목표: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 재수립

LG 전자는 2020년까지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15만 톤 감축(누적 감축량 100만 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9년에 수립하고 매년 달성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내부 탄소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고효율 태양광패널 생산 시 발생하는 SF6(육불화황) 가스처리시설에 투자하여 2017년 한해 동안 약 4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향후 감축 기술을 확대 도입하여 연간 4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인도에서 고효율 냉장고를 판매하여 저감한 전력 사용량을 UN으로부터 인정받고 해당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받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가전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CDM 사업을 세계 최초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또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 전기자동차 부품, 배터리팩 개발 등 Green 신사업을 통해 사용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LG 전자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활동을 시행하여 공급망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 노력에 동참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진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대상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의미하듯,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LG 전자도 기후변화 문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탄소배출 최소화(중립) 개념을 포괄하는 중장기 탄소경영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을 넘어선 중장기 탄소 경영전략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여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가겠습니다.



자원순환 촉진

LG 전자는 이용 자원이 최종적으로 단순히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를 넘어 제품 설계과정부터 재생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및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제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유한한 자원의 소비를 줄임으로서 순환경제를 구축해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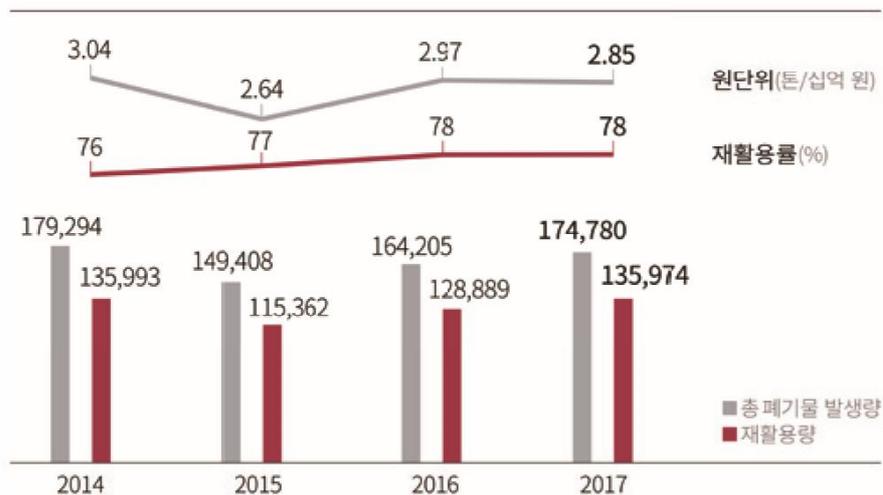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LG 전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및 폐제품 회수활동을 통해 자원의 생산성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목표: 생산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 95% 달성(~2030)

LG 전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배출-집계-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LG 전자는 글로벌 생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매립·소각률을 줄여감으로써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세계 생산 사업장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목표로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지속적인 재활용률 향상 유도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IT 시스템인 EESH Portal 을 활용하여 본사의 폐기물 처리실적 집계/모니터링 대상을 국내 생산사업장에서 전글로벌 생산사업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단위: 톤)



*소각 중 열원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BP 사례 확산을 위해 담당자 정기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환경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담당자가 참여하여 서로의 환경지식과 처리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 담당자 정기 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표: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 만톤 달성(2006년 이후)

글로벌 폐전자제품의 불법 투기 혹은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정부, 산업계, 국제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협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LG 전자는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한 전자제품이 적법하게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폐전자제품 누적 회수량 450 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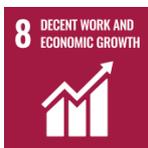
첫째, 각 국가별 정부와 협업하여 폐전자제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LG 전자와 거래하는 재활용업체가 불법 매립/소각 금지,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 수출금지, 아동/강제노동 금지, 보건/환경 국제기준 등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정부기관에서 폐전자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LG 전자에 축적된 지식 제공 및 기술적 협조를 통해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폐전자제품 관리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규제와 각 국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에 따른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서비스 제공
- LG전자 회수·처리 서비스는 2017년 현재 51개국 85개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규제가 시행 및 확대되는 홍콩,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도 해당 국가의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대응체계 마련 실시
- 폐전자제품 관리 관련 상세정보는 이해관계자 공유를 위해 웹사이트 (<http://www.lg.com/global/recycling>)에 별도 개제
- 폐가전 누적 회수/처리량(2006년 ~) 2015년 (139만 톤) 2016년 (183만 톤) 2017년 (205만 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LG 전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반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종합적인 지속가능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사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 등 원재료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등의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목표: 책임있는 광물사용 인증 제련소 (RMAP conformant) 100% 사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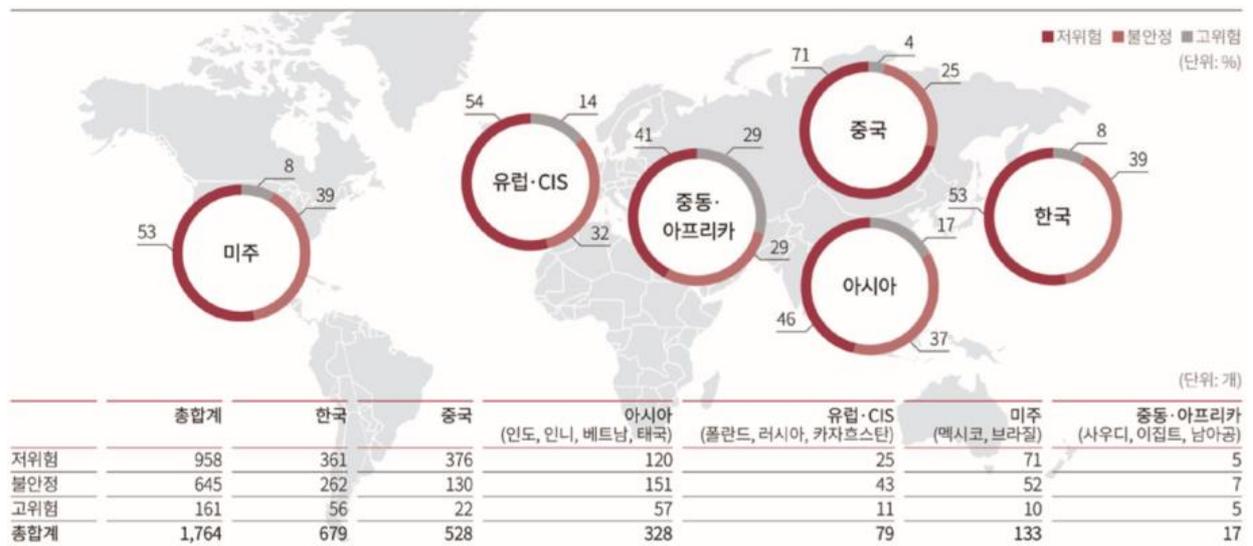
LG 전자는 광물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지역의 불법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 년 Tantalum, 2020 년 Tungsten 과 Tin, 2021 년 Gold 에 대하여 인증(RMAP conformant) 제련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협력회사 및 제련업체 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LG 계열사(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와 함께 협력회사에 인증 제련소 사용 권고를 지속하는 한편, 제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하겠습니다.

둘째, 분쟁광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 대 분쟁광물 관련 글로벌 산업표준을 리드하고 있는 RMI(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와 美 정부, NGO 등이 참여하는 PPA(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의 회원사인 LG 전자는 글로벌 분쟁광물 추적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채굴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카섬 워킹그룹(TWG) 참여 등 실제 채굴환경 개선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목표: 모든 1 차 협력회사 CSR 리스크 점검 및 2,3 차 협력회사로 확대(~2020)

LG 전자는 협력회사의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관리 등 공급망 CSR 리스크 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축으로 인지하고, 2012 년부터 주요 협력회사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다국어 점검이 가능한 CSR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전 협력회사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급망 관리 범위를 2, 3 차 협력회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Formerly the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Advancing Sustainability Globally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

PPA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UDHR) 제2조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부인 및 제한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발효되었습니다. 동 회의 결의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특징과 의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SDGs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7.a는

에너지 기반시설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증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7.a는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투자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2013년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를 '유엔 지속가능한 에너지 10개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A4ALL) 포럼을 2014년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적 에너지 파트너십 및 현대적 에너지에 접근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급 회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서의 에너지'에서 전 멕시코 대통령이자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의 의장인 Felipe Calderón은 재생에너지 생산비가 화석연료 생산비보다 저렴해지면 산림 황폐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에너지 연구 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 정의의 구현이 바탕이 될 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하에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LO 발족 이후 개최된 국제노동회의(1998)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IFP/SEED)을 발족시켰습니다. ILO에서는 중소기업(SMEs)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을 2009년 발족하였습니다. SDGs에서는 ILO의 설립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활동, 창의성과 혁신지원에 더불어 MSMEs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0.2는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0.2는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1995)의 코펜하겐 선언에서 모든 사람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동 선언에서는 경제적 배제를 넘어서,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을 제한하는 정치, 사회(문화·종교·성별)적 부문을 포함한,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장벽을 뛰어 넘어야 사회적 포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는 MDGs에서 권력과 배제를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관계, 불평등의 증가, 거시경제 정책의 모순 등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UNRISD의 국가, 지역별 정책 성공사례를 반영하여 포용의 증진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2.5는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는 환경 및 개발에 대해 통합적이고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 생활 수준의 개선, 적절한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 및 번영하는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동 회의는 각국 정부가 산업, 가정 및 시민과 함께 쓰레기 및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 공정 및 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재활용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제품의 과도한 포장을 줄이며, 친환경 제품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환경계획(UNEP)은 폐기물에 대한 많은 문서들이 대체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도국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관리(Solid Waste Management, 2005)'를 발간했습니다. 동 문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품이나 포장 재설계, 소비자 인식 촉진,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고취를, 지역적 차원에서는 혼합된 폐기물로부터 자재 회수, 제품 포장 재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 쓰레기를 가정 비료로 이용하는 등 쓰레기 감축에 힘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SDGs도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폐기물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3.3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세부목표 13.3은 기후변화 완화 및 조기경보에 관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제6조에서는 동 협약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 이행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회의(2009)에서 본 선언(Boli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기후변화교육(CC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제고를 추진했습니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기후적응행동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기상관측 시스템을 강화하는 칸쿤기후적응 프레임워크(Cancun Adaptation Framework)를 발족하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SDGs에서도 이 같은 노력에 이어 기후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문 보기](#)

3. [SDG 미디어 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후변화 의식 변화

-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디자이너 겸 Trollback Company CEO 외 1 인



<우측부터 마리아 네이라(Maria Neira)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책임자,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Trollback Company CEO 및 디자이너>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 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 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마리아 네이라 (Maria Neira)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총책임자, 그리고 제이콥 트롤백 (Jakob Trollback) Trollback Company CEO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제이콥 트롤백은 SDGs의 17개 목표의 아이콘을 제작한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방안과 개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SDGs의 대중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었는가?”라는 질문에 제이콥 트롤백은 “17개의 SDGs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간단한 아이콘과 문구를 이용한 시각화를 통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17개의 목표는 상징적인 의미다. SDGs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169개의 세부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7개의 목표를 상징성을 띄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환경 및 보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마리아 네이라 WHO 공공보건 및 환경부 책임자는 “매년 환경문제로 약 700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WHO는 지난 몇 년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시각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추구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극곰의 사진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꽃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오염된 공기 속에 살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더욱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이 무력함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균형의 중요성을 뽑았습니다. 제이콥 트롤백은 “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개개인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접근법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뉴스

1. 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가치 채권 인증 획득



-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 특별계정채권이 사회적 가치 채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외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 사회적 가치 채권은 채권투자자금이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특수 채권을 의미함
- 해당 인증은 예특채가 예보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조달한 재원이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획득한 것임
-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실천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2. 신한은행, 코로나 19 금융지원 위한 소셜본드 발행



- 신한은행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을 위해 미화 5천 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를 발행한다고 밝힘
- 이번 채권은 국내 최초로 자금 용도를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 지원, 확산 방지 활동 지원으로 특정한 소셜 본드임
- 또한, 원화 및 외화 그린본드, 외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권에 이어 네 번째 ESG (환경·사회·지배구조)로 발행되는 채권임
-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힘

매일경제

3. 예술위, 문화예술 공공기관 첫 인권영향평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관 활동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누리집(arko.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힘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기관 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인권영향평가를 받기는 예술위가 처음임
- 예술위는 2017년 처음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듬해 인권경영 전담조직과 인권경영위원회를 꾸리고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과제를 수행해 오
-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해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주요사업 각 영역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CSR 뉴스

1. [피플]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힘
-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으로, ‘젠더’, ‘기후변화’, ‘반부패’를 2020년도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함
- UNGC 한국협회에서 런칭을 앞두고 있는 “Target Gender Equality(TGE)”는 기업의 여성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성 관점에서 기업의 성 평등 문화 내재화와 시스템 구축이 핵심”임
- 또한 이 실장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대책반(TCFD)을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이런 흐름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 분석 및 국제 활동 참여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부패 법제화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시그널로 우리 연기금과 투자자도 기업 반부패 이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함
- 이 실장은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맞게 사회구성원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라며 “UNGC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힘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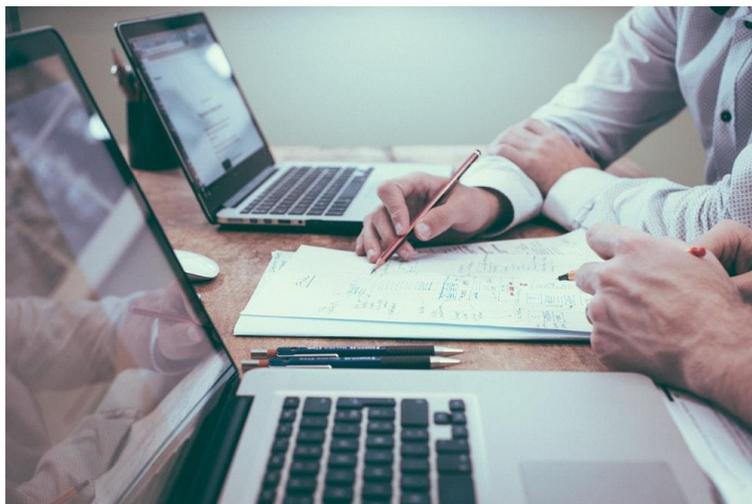
2. 법률이 여성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 최근 세계은행그룹은 ‘여성, 기업과 법’이라는 여성 차별적 법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률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임금의 경우, 법률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100 점 만점에 25 점으로 세계 평균 66.1 점에도 크게 뒤져 세계 최하위권을 차지함
- 임금 차별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질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가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인 것으로 풀이됨
- 육아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53.9 점)보다는 비교적 높은 80 점의 점수 집단에 속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과는 별개로 제도의 실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가 따름
-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법률이 여러 분야의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우먼타임스

3. 글로벌 'ESG 투자' 폭풍성장...한달새 6.8 조 유입



-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수익률이 수년째 시장수익률을 웃돌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투자 부문이 급증하고 있음
- 5 일 블룸버그와 SK 증권에 따르면 MSCI 기준 주요 ESG 지수가 최근 2 년간 대부분 지역에서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 자금은 57 억달러(약 6 조 8000 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해외 ESG 시장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대비 ESG 시장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임

매일경제

4.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영국이 주요 성장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힘
- 금융행위감독청은 오는 6월까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연내 최종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
-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의 프리미엄 부문 상장기업은 주요 20 개국 재무장관·은행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2017년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함
- TCFD 권고안은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현재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돼 있는 480 개의 기업은 앞으로 TCFD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밝혀야 함
-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된 정보 공개가 더 나은 자산평가와 함께 투자자들이 투자를 조정할 때 잘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강조
- 금융행위감독청은 향후 프리미엄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계획함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0곳입니다.

1. COP/COE 제출회원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거래소
-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BGF 리테일, 한국조폐공사,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카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컨설팅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오토, 비엘에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서스틴베스트, 나인,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LG 디스플레이, SK 주식회사, 삼덕통상(주),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진해장애인복지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나노기술원, 신용보증기금, 현대엘레베이터, 부영, SK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LS 전선, 한국전력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